

제10절 왕피2리(王避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첩첩 산맥(山脈)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며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왕피천(王避川)을 따라 동서(東西)로 뚝뚝뚝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마을의 동쪽은 근남면, 매화면(九山里)과 경계를 하고, 서쪽은 왕피천 상류인 왕피1리, 남쪽은 대령산(大嶺山)과 매화면 갈면리(葛綿里), 길곡리(吉谷里) 지역이며, 북쪽에는 천축산(天竺山) 불영사(佛影寺)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왕피2리(王避二里)에는 삼척 김씨(三陟金氏) 진사(進士)가 처음 입주(入住)한 후에, 순흥 안씨(順興安氏)와 흥해 배씨(興海裴氏) 등이 입향(入鄕)하여 마을을 형성(形成)하였고, 이전(以前)에는 공민왕(恭愍王)이 피신(避身)하여 포진(布陣)하였던 곳이다.

1) 골안(內谷, 虜谷)

골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골안’이라 하고, 또는 포로(捕虜) 당한 곳이라 하여 노곡(虜谷)이라 부른 때도 있었다. 일제(日帝)강점기에는 광산종업원(鑛山從業員)의 사택(舍宅)과 갱도굴진(坑道窟進)을 위한 공장 등 수십 동의 건물로 공장지대를 방불케 하였으나 광복 후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의 기초와 흩어진 기왓조각만 남아있다.

2) 병위(兵衛)

공민왕(恭愍王)이 이곳에 피신했을 당시 호위병이 주둔했던 곳이다. 지금은 한농복구회(韓農復舊會) 본부가 있다.

3) 속사(束沙)

왕피천(王避川) 하류(下流)에 있는 동쪽 마을이다. 상록숙근초(常綠塾根草)인 속새풀이 많이 있었던 곳을 개척하였다 하며, 왕피리에서 모래가 이곳으로 다 모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농복구회(韓農復舊會)가 입주하였다.

4) 시목(柿木)

감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건시(乾柿)를 당시 현령이 맛보고 질이 좋다 하여 감나무재배를 권장하였다고 전한다.

5) 실독마을

시리들이라고도 부른다.

6) 임왕터(臨王), 임광터(林光)

공민왕이 이곳까지 왕임하였다 하여 임왕터라 하였으며 또는 임씨(林氏)가 처음 개척하였다 하여 임광터라고도 하였다. 이 마을에는 한농복구회원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7) 톱거리(鉅野, 巨野)

고종(高宗) 때 황장목(黃腸木)을 처음 톱으로 베었다 하여 거야(鉅野)라 하였다고 하며, 또는 공민왕이 피난 때 군수물자(軍需物資)를 야적(野積)한 곳이라 하여 거야(巨野)라고도 하였다.

8) 포전(飽田)

공민왕(恭愍王) 호위병(護衛兵)들의 취사장(炊事場)이 있어 배불리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농복구회원(韓農復舊會員)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9) 호박밭[거야삼거리]

왕피1리와 왕피2리의 경계 지역에 3세대가 살고 있으며 호박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호박밭이라 불려왔으나 한농복구회원이 입주하면서 ‘거야삼거리’라 부른다.

3. 가구 분포

총 138세대가 거주하며 대부분 한농복구회 소속이다.

4. 마을의 특징

1) 석회암동굴(石灰巖洞窟)

곡내동에 있는 동굴로 이 동굴에서 용출(湧出)되는 물은 계절과 관계없이 많은 양이 일정하게 흘러내리며 수온(水溫)의 변화도 없다. 이 깨끗한 물을 이용한 양어장에서는 여름이면

산천어등을 양식하여 출하하고, 주어종(主魚種)인 송어는 계절과 관계없이 출하하고 있다.

2) 천제암(天祭岩)

예로부터 주민들이 풍년(豐年)을 기원하며 모셔온 큰 암반(岩盤)의 성소이다. 매년 11월 1일에는 천제(天祭)를 올리고 있다.

3) 한농복구회(韓農復舊會)

한농복구회의 명칭은 “한국농촌복구청년불빛회”로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는데, 울진군에는 한농복구회 본부와 그 산하인 제1지부가 금강송면 왕피2리 병위부락에 있으며 주로 금강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한농복구회는 흙을 사랑하고 퇴폐된 농촌, 소외된 농민들의 복지증진과 천연 농법에 의한 영농을 통해 새농촌, 새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이상 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단체로 십계석국총회로 지칭되는 종교집단이다.

제11절 전곡리(前谷里)

1. 마을의 자연환경

금강송면 소재지(所在地)인 삼근리에서 24km나 떨어져 있고, 그 서쪽에 있는 태백산맥(太白山脈) 준령(峻嶺)의 계곡(溪谷)인 낙동강(洛東江) 상류의 강변(江邊)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의 서쪽은 봉화군(奉化郡)의 소천면(小川面), 석포면(石浦面)과 경계를 이루고, 동남쪽은 쌍전2리, 광회1리와 접하여 있으며, 북쪽에는 백병산(白柄山)[1,136m], 오미산(梧味山)[1,171m]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갈마지(渴馬池)

1770년경에 방씨(房氏)가 개척(開拓)하였다 하며, 이 마을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形局)이라 하여 갈마지(渴馬池)라 불렀다 한다.

2) 원곡(元谷)

1656년(효종 7)에 좌승지(左承旨) 남양인(南陽人) 방덕영(房德永)이 마을을 개척(開拓)